



정부는 국채 이자지출을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 중이며, 향후 차환 리스크도 낮은 편입니다.

< 언론 보도내용 >

- '26.10.17., 서울경제「4년간 241조.... 저금리 국채의 역습」 기사에서
 - “최근 전세계적인 고금리 행진 속에 과거에 낮은 이자로 빌린 빚을 높은 금리로 갚아타야 하는 정부의 차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”고 보도 하였습니다.

< 정부 입장 >

- 국고채 이자비용을 포함한 국채 이자비용은 '26년 기준 GDP의 1.3% 수준 이며, '30년까지 GDP 대비 1.5%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.

<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비용 전망 >

(단위: 조원, %)

	'25년(결산)	'26년	'27년	'28년	'29년	'30년
○ 국채 이자 (GDP 대비, %)	31.7 (1.2)	36.5 (1.3)	42.7 (1.4)	45.3 (1.4)	48.9 (1.4)	53.2 (1.5)
■ 국고채	30.3	34.4	40.4	43.2	46.6	51.1
■ 국민주택채	1.0	1.0	0.8	0.9	1.0	0.8
■ 외평채	0.5	1.1	1.5	1.2	1.3	1.3

- 현재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*, 주요 선진국 대비 이자지출 비중**도 크게 낮아 충분히 감당 가능한 수준입니다.

* 총지출 대비 이자지출('25 결산기준): [韓] 4.6% < [日] 9.2% < [美] 13.8%

** '26년 주요국 GDP 대비 일반정부 이자지출 비중 전망(GDP%, OECD, 26.6월 기준):
(한국) 1.34 (미국) 4.73 (일본) 1.71 (프랑스) 2.44 (독일) 1.17 (영국) 3.33

- 또한, 우리나라 국고채의 평균 잔존만기가 주요국 대비 긴 점을 감안하면, 차환에 따른 이자비용 상승 등의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.

* 평균 잔존만기(년, '25년말 기준): [韓] 12.8 [美] 5.8 [日] 8.7 [獨] 7.8

□ 정부는 '26년 초과세수 및 '27년 추가세수를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* 하는 한편, 향후에도 시장금리, 수급여건, 중장기 이자비용 및 차환부담을 고려하여 국채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가겠습니다.

* '26년 초과세수를 활용하여 10월 국채 발행량을 당초계획 대비 5조원 축소
'27년 추가세수 중 12.5조원을 국채 신규발행 축소에 활용

재정경제부 <공동>	국고실 국채정책과	책임자	과 장	박민주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선익 (ksi1206@korea.kr)
기획예산처 <공동>	미래전략기획실 지속가능재정과	책임자	과 장	오현경 (044-214-1830)
		담당자	사무관	전찬익 (jky820@korea.kr)

